

데스크 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제2사회부장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했다. 중국 당나라는 관리를 등용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무려 1400년 전부터 인물을 판단할 때 써 온 네 가지 표준이 바로 신언서판인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풍모에 기품이 있고(身), 말을 잘하며(言), 글을 잘 쓰고(書), 판단력(判)이 좋아야 한다. 이는 시대가 변한 요즘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에게 특히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인 ‘언(言)과 서(書)가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번드르르하게 말을 잘하는 것과 유려하게 글을 잘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중과의 소통이다.

정용진의 ‘멸공’과 윤석열의 ‘멸공’

그런 만큼 리더의 품격은 말과 글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두 명의 리더가 품격 없는 말과 글로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권경도에도 나서면서부터 정제되지 않는 말로 물의를 빚곤 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며 ‘갈았다’는 말까지 했다. 정부 여당을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라거나 고위공직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오래 전 해외여행 중 자주 목격했던 일이다.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큰소리로 웃고 떠들며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요즘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큰 목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일행과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중요한 일인가 해서 보면 별일도 아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접스러운 잡담이 대부분이다. 조곤조곤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말의 내용이 부실하니 목소리라도 커야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광장에 나가면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여객이 등장하는 목소리, 노랫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든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당신은 들어야 한다”는 강요가 여기서도 나타난다. 이를 거부하면 불통이라고 강변한다.

기고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 세대의 소득율이 급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이 노인에서 청년으로 옮겨가고 있다. 고용 불안과 양극화 속 청년들의 절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OECD가 발표한 ‘청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43.5%로 OECD 평균치인 53.9%에 10% 이상 못 미치고 있으며, 조사 대상 37개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 10월 기준 청년 확대 실업률은 24.4%로 사실상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역동적이어야 할 청년세대가 움츠러들고, 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우리는 청년이 사라지는 시대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청년이 사라지는 사회에는 지역도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북구도 청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 지역 청년(만 19세~만 39세) 인구는 39만 8000여 명(2020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145만여 명)의 27.4%를 차지한다. 총인구가 43만여 명인 북구는

리더의 품격은 말과 글에서 나온다

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는 말인데 하이데거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그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계에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말과 글이 논란이 됐다. 정 부회장은 재벌이 2-3세 중에서도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77만 명을 보유한 정도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세월호 추모 글을 희화화하거나, 빨간 피자회사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불인 ‘공산당이 싫어요’ 해시태그로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한 새해 들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에 ‘멸공’을 붙였다가 외교 분쟁 우려 지적에 일단 삭제했지만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신세계그룹 제품 불매운동이 일었고 계열사 주가가 급락했다. 급기야 이마트 노조가 정 부회장을 향해 ‘멸공도 종지만 본인이 해 온 사업을 먼저 돌아보라’며 ‘오너리스크’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 부회장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가 최근 경제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너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말공 논란을 계기로 광주신세계와 정 부회장의 관계가 재소환되고 있다.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매각하고 떠나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부회장은 1998년 신세계의 100% 자회사이자 독립법인인 광주신세계 지분 83%를 41억 원에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서 신세계의 오너 밀어 주기 의혹이 일었다. 당시 광주신세계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모회사인 신세계가 증자 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정 부회장 개인이 받아 가게 한 것이다.

소통 중요하지만 분열 조장은 안 돼

정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광주신세계 지분을 신세계에 2280억 원에 넘겨 23년 만에 무려 54배의 수익을 냈다. 신세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어 시가보다 20% 비싸게 정 부회장의 주식을 사 주었다. 반면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지분을 처분한 후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해 결국 주주들만 피해를 떠안았다. 광주신세계는 매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라 지역민들도 소액주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만 이익을 챙기고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이 오너리스크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원인을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책임 있는 리더라면 그가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그가 사업가로서 걸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과 소통한다는 이유로 SNS에 분열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품격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정용진의 ‘멸공’에서 시작돼 윤석열의 ‘멸공’으로 이어진 논란을 보면서 리더의 말과 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bungy@kwangju.co.kr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회

확실히 우리 사회는 시끄러운 사회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봐도 목격 큰 몇 사람이 담론을 지배하는 구조다. 사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이 없다는 뜻이다. 도란도란 얘기해도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고, 품격 있는 사회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목소리를 낮추고 좀 조용히 살자.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이란 책을 쓴 미국의 여류작가 도터 빌링턴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면 늙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한다.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이기보다 상대방 의견에 토를 달지 못해 좀이 쑤시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징조라는 것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연발하며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 하시는 환영받는 노인이 될 수 없다. 그게 어디 나이 든 사람들뿐일까.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환영받는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사람, 한마디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인기가 높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비관보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웃과 공감하는 삶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자기만의 과시욕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듯하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명

품으로 치장하고, 더 큰 차, 더 넓은 아파트 등으로 물질 과시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자아가 공허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스트레스의 최대 요인이다. 사회적 성공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리플리’(Ripley)병이라 한다. 이는 사회적 성취욕은 강하나 성공 가능성이 낮을 때 점점 더 거짓말과 신분 위장을 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교수 채용 과정에 위조된 학력 증명서를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신정아 사건 후 화제가 되었다. ‘리플리’는 원래 소설에서 시작한 이름이지만 1960년 영화 ‘태양은 가득하’에서 주인공의 이름이다. 영화 속에서 리플리는 “초라한 현실보다 멋지게 꾸민 거짓이 낫다”라고 위로하지만, 그도 결국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작금의 각종 학력 스캔들을 볼 때, 리플리 증후군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실력이 아니라 간판이 중요 시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괴물이다. 학력 검증이 이어지면서 유명인 중에서도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고 있다. 요즘은 조사하면 다 나오는 세상 아닌가. 극심한 경쟁 사회라지만 한심한 모습이다.

광주 북구, 청년의 미래에 투자한다

27.6%인 11만 9000여 명이 만 19세~만 39세인 청년층이다. 문제는 청년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북구 청년 인구의 추계를 계산해 본 결과, 2020년 대비 청년 인구 증감률은 2030년 22%, 2050년 43%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65년에는 2020년 청년 인구의 절반 가량이 51%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북구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청년 창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하고, 청년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청년 정책’ 추진에 나섰다. 우선 지난 2018년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구성, 청년창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또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북구’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과 재충전, 취·창업, 참여·금융 활동, 결혼 출산 지원 등 5대 추진 전략과 35개 추진 과제가 담긴 ‘2021~2024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거점 공간인 북구 청년센터 ‘청춘이랑’을 개소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 체험, 소셜 다이닝, 취·창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청년센터’를 구축해 비대면 문화의 혁신을 선

도하고 있다. 또한 LH광주전남분부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하주공아파트 내 창업 지원 공간을 마련, 청년 창업 기업에 임대료 없이 입주를 지원하고 있고, 오치주공아파트 상가를 ‘청년 스타트업 허브센터’로 조성해 창업 공간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와 협업 추진 중인 300억 원 규모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기반 조성을 꾀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티브 스트리트 조성’ 사업을 뉴딜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청년들의 어깨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청년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면 그 부메랑을 맞은 것은 기성세대들이다. 청년들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 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투자는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정책과 현실 타계를 위한 청년들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젊어질 것이다. 우리 북구가 2022년 제1호 결재인 ‘청년 자립 지원 업무협약’으로 임인근 새해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社說

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선임 ‘보은 인사’ 아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에 따라 신설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공식 출범했지만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를 경영진에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에 최영준(전 광주문화방송 사장) 씨를, 초대 사장에는 김선욱(전 시의원) 씨를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립재단이 광주신세계 지분을 처분한 후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해 결국 주주들만 피해를 떠안았다. 광주신세계는 매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라 지역민들도 소액주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만 이익을 챙기고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이 오너리스크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원인을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책임 있는 리더라면 그가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그가 사업가로서 걸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과 소통한다는 이유로 SNS에 분열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품격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다. 정용진의 ‘멸공’에서 시작돼 윤석열의 ‘멸공’으로 이어진 논란을 보면서 리더의 말과 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결합기 안전 점검으로 대형사고 못 막는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점검이 수차례 있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사고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정부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안전 점검이 모두 열차려 있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지방노동청은 2019년 11월 한 차례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결과는 ‘이상 무’였다. 익산국도관리청도 지난해 9월 이곳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총 여덟 개 동 중 한 동만 육안으로 점검했고,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제외됐다. 점검 결과도 노면 배수차기 미흡으로 인한 빗물 고임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게 전부였다.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한 문제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구 역시 지난해 모두 여덟 차례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 규정 위반이나 부실한 공정 진행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콘크리트 강도 검사는 장비가 없어 맨눈으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시설·장비 관리 상태나 위험 방지 조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구조적 문제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재해 예방을 지도·감독하는 지방노동청의 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이처럼 현 시스템으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감독 인력을 대폭 늘려 점검 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발주청 등에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갈라치기’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갈라치기’란 바둑 용어로, 넓게 펼쳐진 상대 진영의 중앙 부분에 돌을 놓아 좌우를 가름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제한하는 수다. 하지만 이 같은 뜻의 갈라치기란 말이 최근 바둑판이 아닌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 기사에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남녀를 갈라놓고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윤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에서 언급했던 ‘정공산주의를 말하자는 ‘멸공’ 인증 릴레이’를 야권 인사들이 이어 가면서 철 지난 ‘색깔론’으로 때어난 이념 갈등까지 이슈화됐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 국민을 양갈래로 나눈 뒤 어느 한쪽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민 대통합’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국민 갈등을 더욱 심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선은 진보와 보수 간 진영 갈등

갈라치기 정치

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진영을 넘어 세대 간, 성별 간 극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정 세대와 성별을 나눠 겨냥하는 갈라치기 정치행태가 득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국민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치는 갈등 조정과 중재가 우선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하지만 대선 후보나 거대 정당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정치적 행태는 오히려 국민에게 ‘정공산주의’를 말하자는 ‘멸공’ 인증 릴레이를 야권 인사들이 이어 가면서 철 지난 ‘색깔론’으로 때어난 이념 갈등까지 이슈화됐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 국민을 양갈래로 나눈 뒤 어느 한쪽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민 대통합’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국민 갈등을 더욱 심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선은 진보와 보수 간 진영 갈등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